

## 부산-홍콩 여객기 운항 추진

건설교통부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홍콩과 항공회담을 열고 부산-홍콩간 여객노선개설과 서울-홍콩 노선의 증편운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홍콩 노선에는 대한항공이 주 1회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으나 여객수요도 많아 이번에 부산-홍콩간에 주 3회 정도로 신규여객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또 지난 '92-95년 서울-홍콩간 여객수송실적이 연평균 11%씩 늘어나고 있는데다 올 상반기 평균 탑승률이 72%에 이르러 있어 이 노선 증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한·홍콩 항공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광재 건교부 국제항공담당관을 비롯해 항공사대표 등 8명이, 홍콩측에서는 M아놀 수 경제부 항공협상 담당관등이 참석하게 된다.

한편 현재 서울-홍콩여객노선에는 대한항공이 주 1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10회, 캐세이퍼시픽항공이 타이베이경유 7회를 포함해 주 21회씩 운항하고 있다.

### 중국, 최초로 MD-90 인도

맥도넬 더글라스(MD)사는 중

국 북부 항공 노선에 11대의 MD-90 TrunkLiner기를 인도하면서 4년간의 개발 노력의 성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동 인도는 고조되고 있는 중미 무역 마찰로 오랫동안 지연된 구매 계약이 7월 17일 북경에서 서명된 후 이루어진 것이다. 동 계약은 9대의 동 항공기를 동부 노선에 인도하는 것과 상하이에서 20대의 쌍발제트기를 제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MDC가 92년에 체결한 초기의 TrunkLiner 거래 조건은 항공기 40대 전부가 중국에서 제작되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이후 '94년에 20대는 상하이에서, 나머지 20대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MD-95의 날개 부분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Tracor사가 맡게 되었는데, 캐나다 MDC에서 Palmdale에 있는 Tracor사의 조립 현장으로 해상으로 운반되어 조립, 완성될 것이다. 이후에는 점차로 한국의 현대에서 제작된 날개 부분이 생산 과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날개 생산 센터의 관계자는 밝혔다.

원래의 계획은 한국의 한라가 날개를 생산하며 조립을 위한 부지를 롱비치 부근에 임차하기를 요구했으나, 그 작업이 2월에 현

대로 이전된 후에는 계약자의 요청으로 MDC가 날개의 결합을 맡게 되었다.

### FAA, 산화제 금지

ValuJet 항공기의 추락 이후 미 연방 항공국(FAA)은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로 산화제를 수송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회에 동 기관의 97년 예산을 수정하여 유해 물질을 다루는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다.

FAA의 행정관인 데이비드 R. 헨슨은 동 기관의 요구를 수정하여 유해 물질의 감시를 위한 천4백만불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의 일부분으로 현재 유해 물질에 대한 전문가 22명을 130명으로 증원하는 데 천만6십만불이 투입될 것이다.

그 자금중 일부는 조사 및 특수 프로그램국(RSPA)으로 전달되어 화물 운송의 보안 조치를 개선하고 테러범과 범죄자들의 위협을 처리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동 기관의 주 감시 임무는 운송업자와 포장 제조업자에 집중될 것이다.

RSPA가 산소 발생기를 수송하는 민간 수송기에 승객을 태우는 것을 1월 1일까지 금지시켰으나 FAA는 동 기관에 여객기 및

화물기의 일부 구획에 산화 물질을 수송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태국, 6대의 747-X기를 위한 양해 각서 계획중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사는 6대 가량의 새로운 보잉 747-500/600X기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토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항공사는 제출에 앞서 태국 정부가 항공기 현대화를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동 항공사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싱가포르 항공과 함께 아시아의 국제 항공사 그룹중 하나로 미 보잉(Boeing)사가 판보로 에어쇼에서 계획 중인 747기 개량형의 양해각서에 서명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

태국의 중요 소식통에 따르면, 동 항공사는 우선 3.4대의 초장거리용 보잉 747-500X 스트레치기와 두 대의 더 큰 탑승량을 가진 -600X기의 필요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잉사는 이러한 파생형 항공기가 유럽과 미국서 안지구 행에서 발생하는 유료

하중 및 운항 거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태국은 더 이상의 지연은 항공기 인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경고하면서 8월말까지 태국 국가 경제 사회 개발 위원회가 동 계획을 위한 56억볼의 예산을 승인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BA사, 개정된 법규를 이용 TAT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

브리티시 에어웨이(BA)는 동사의 프랑스 지역 자회사인 TAT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변화된 국제 소유권의 중요한 이점을 획득한 최초의 '유럽' 항공사가 되었다.

BA는 92년 TAT의 49.9%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유럽이 자유화되는 '97년 4월 이전에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고 영국의 국내 시장을 외부 경쟁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는 TAT의 수익률을 개선

시키고 프랑스의 항공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처하려고 한다.'라고 BA의 회장 보브 이일링은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가 프랑스 소유의 항공사를 유럽 연합 내의 국민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한 유럽의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했다.

TAT사는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나, 68년 동사를 설립한 Michael Marchais는 '95년의 부흥 이후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TAT가 이미 동사가 운송하는 교통의 약 40%를 BA사의 이윤이 남는 장거리 운항에 공급함으로써 동 그룹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는 이미 초기에 동사의 주식을 위해 3억2천만 프랑을 지불했으며, 앞으로 나머지 지분을 위해 약 1억6천만 프랑을 지불할 예정이다.

